

# 초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 A Study on Recognition, Utiliza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오세현 · 이양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h, Sae Hyun · Lee, Yang S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undamental research data that is necessary in an education of dietary life so that the students have sound dietary life through a right food purchase after investigating perception of children's dietary habit and activity, food labelling, and nutrition labelling for 400 students of the 5 and 6th grades.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In terms of perception questions over food labelling, on the whole, "know it little bit" was the highest. Girls and country was higher than boys and city. A list of item that is important in contents of food labelling were period of circulation, data of manufacturing, price, used ingredient, origin of product, nutrition contain labelling, manufacturer, quantity in contents(quantity, the number). A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gender( $p<.05$ ) and area( $p<.01$ ). In 30 perception questions over nutrition labelling, "know it little bit" was the most, and girls and country were higher than boys and city. In ascertaining nutrition labelling at the time of purchasing the food, "look often" was the most. Girls and city were higher than boys and Gun in average but no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hown in knowledge mark in utilization and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ling. The response rate in girls( $p<.01$ ) and country( $p<.05$ ) was higher in a question of "if nutrition labelling is displayed, nutriment that is harmful for our body will be eaten less" and girls' response rate was higher in the question of "being educated for my health". Therefore, practice centered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to purchase the food after ascertaining food nutrition labelling out of an attitude in habitually purchasing the processed food. The students develop comprehensible food nutrition labelling the direction to emphasizing nutrition educational labelling and recognizing that the healthy nutriment is contained without conventional and food safety centered labelling should be changed.

**Key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od labelling, nutrition labelling, snack, processed food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의 향상, 식량자원의 다변화 및 식품가공 산업의 발달로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식생

활이 가능한 형편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식품 및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에 따른 옳지 않은 영양섭취와 잘못된 식사습관에 의해 영양학적으로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박혜련 외

---

\* Corresponding author: Lee, Yang Soon  
Tel: 041-330-1463, Fax: 041-330-1469  
E-mail: leeys@kongju.ac.kr

(1995), 홍양자(1998)의 연구에서 아동기부터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파악을 비롯하여 건전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김향숙 외(1999), 주나미 외(2005)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창안된 제도가 식품영양표시제도이다.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영양표시제도는 식품표시 항목 중의 하나로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가치를 정해진 기준과 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정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 5월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식업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영양성분표시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제과업계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트랜스 지방의 표기 의무화를 1년 앞당겨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어린이와 부모들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선도업체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인증마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식품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없어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선호하는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이주인 외, 2008).

근래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 아동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들의 생산 증대 및 취업모의 증가는 아동들을 식품구매를 비롯하여 식품의 자주적인 소비의 주체자로 부각시켰다(김동순, 이정원, 2002).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고 종합하는 인지 능력의 성숙과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서히 사춘기에 접

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형성, 식품선택은 신체의 발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강석아, 2001). 따라서 어린 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와 건전한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아 개념과 자기주장이 확립되어 가는 아동기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동의 구매력 증가와 관련하여 식품 구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라 영양과 건강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영양교육 등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이인숙 외, 2002). 또한 식품영양표시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유용한 영양교육 도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영양표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고, 식품영양표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식 행동, 식품표시와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성별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성장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교육과 소비자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식품영양표시제도 확립과 영양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10월중에 경기도 군포시 지역과 충청남도 연기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430부를 배부하여 41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총 400명(남학생 182명, 여학생 21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나영, 이정숙

(2009), 박선성 외(2008), 손재연(2007), 이은영(2008), 이현정 외(2002)등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문항, 평소에 가장 자주 사먹는 식품 10 문항, 식품구입시 학생의 인식과 식 행동 11문항, 식품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5문항,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4문항, 영양표시에 대한 기대효과 5문항으로 총 43 문항이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어린이들의 식생활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한 문항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모른다, 4: 조금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안다)를 이용하였다.

###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과 식행동은 T-test를 하였고,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점수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하였고, 기대효과 변수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를 사용하였으며, T-test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모든 결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Ⅲ. 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 분	빈도	%
성별	남	182	45.5
	여	218	54.5
지역	군지역	254	63.5
	시지역	146	36.5
모 직장유무	다니지 않는다	220	55.0
	다닌다	180	45.0
학년	5학년	205	51.3
	6학년	195	48.8
가족수	2명	4	1.0
	3명	31	7.8
	4명	261	65.3
	5명 이상	104	26.0
가정형편	넉넉하지 못하다	13	3.3
	보통이다	279	69.8
	넉넉하다	108	27.0
모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1	2.8
	고등학교 졸업	135	33.8
	대학교 졸업이상	254	63.5
식생활 관리자	어머니	356	89.0
	아버지	18	4.5
	할머니	20	5.0
	기타	6	1.5
전체		400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 400명 중 남학생의 응답은 45.5%, 여학생의 응답은 54.5%의 비율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응답은 63.5%, 시지역의 응답은 36.5%였으며,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의 응답은 55%, ‘다닌다’의 응답은 45%를 차지해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니가 다소 많았다. 가정형편별로는 ‘보통이다’, ‘넉넉하지 못하다’, ‘넉넉하다’순으로 응답해 보통수준의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하의 순으로 대학교 졸업이상이 가장 많았다. 식생활관리자별로는 어머니 89%, 아버지 4.5%, 할머니 5%, 기타 1.5%로 어머니가 관리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2. 식행동

### 1) 평소에 가장 자주 사먹는 식품

평소에 가장 자주 사먹는 식품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소에 자주 사먹는 식품으로는 과자류(18.8%), 아이스크림류(14.5%), 사탕, 초콜릿, 캐러멜류(12.6%),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플레류(12.0%), 라면류(10.2%), 즉석식품(9.3%), 주스류(8.1%), 탄산음료(7.0%), 빵, 햄버거류(4.8%), 시리얼류(2.7%)순으로 과자류와 아이스크림류가 가장 자주 사먹는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빵, 햄버거류나 시리얼류가 가장 적게 사먹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표 2> 평소에 가장 자주 사먹는 식품

M(%)

식품류	성별		지역별		전체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즉석식품(삼각김밥, 샌드위치, 어묵 )	48( 9.0)	62( 9.6)	73( 9.7)	37( 8.7)	110( 9.3)
빵, 햄버거류	24( 4.5)	32( 5.0)	34( 4.5)	22( 5.2)	56( 4.8)
과자류(스낵, 비스킷 류)	97(18.2)	124(19.2)	146(19.4)	75(17.7)	221( 18.8)
라면(컵라면)류	72(13.5)	48( 7.4)	64( 8.5)	56(13.2)	120( 10.2)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	56(10.5)	27( 4.2)	38( 5.0)	45(10.6)	83( 7.0)
주스류(사과,오렌지,포도주스 등)	52( 9.8)	43( 6.7)	54( 7.2)	41( 9.7)	95( 8.1)
사탕, 초콜릿, 캐러멜류	41( 7.7)	108(16.7)	114(15.1)	35( 8.3)	149( 12.6)
시리얼류(켈로그 등)	14( 2.6)	18( 2.8)	21( 2.8)	11( 2.6)	32( 2.7)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플레류	54(10.2)	87(13.5)	99(13.1)	42( 9.9)	141( 12.0)
아이스크림류	74(13.9)	97(15.0)	111(14.7)	60(14.2)	171( 14.5)
전체	532(45.2)	646(54.8)	754(64.0)	424(36.0)	1178(100.0)

### 2)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과 식행동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과 식행동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과 식행동에서는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고른다’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5$ ).

‘식품 광고는 구입에 큰 영향을 준다’인 경우 여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p<.05$ ).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내용은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1$ ).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 본다’는 남학생의 평균이 0.3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

‘제품의 이름이 구입에 영향을 준다’에서도 여학생의 평균이 0.24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식품 구입 시 가격을 비교 한다’, ‘식품 구입 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고른다’, ‘식품에 대한 표시 내용을 비교해 보고 산다’, ‘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부모님 의견에 따른다’, ‘제품의 색이 눈에 필수록 더 사고 싶다’, ‘유명상표 식품의 경우 값이 비싸도 기꺼이 구입 한다’, ‘과자나 음료에 있어 하나의 특정한 제품만을 습관적으로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제품의 이름이 구입에 영향을 준다’와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식품 광고는 구입에 큰 영향을 준다’인 경우 군지역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내용은 그 제품에 대한 것

<표 3>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과 식행동

(평균±표준편차)

식품류	성별			지역별		
	남	여	t(p)	군지역	시지역	t(p)
식품구입 시 가격을 비교한다.	3.84±3.84	3.96±3.96	-1.288(.198)	3.98±3.98	3.78±3.78	1.890(.059)
식품구입 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고른다.	2.27±2.27	2.52±2.52	-2.318(.021*)	2.44±2.44	2.34±2.34	.858(.391)
식품에 대한 표시 내용을 비교해 보고 산다.	2.93±2.93	3.01±3.01	-.712(.477)	3.00±3.00	2.92±2.92	.719(.473)
식품 광고는 구입에 큰 영향을 준다.	2.25±2.25	2.46±2.46	-2.089(.037*)	2.47±2.47	2.19±2.19	2.643(.009**)
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부모님의견에 따른다.	2.93±2.93	2.90±2.90	.322(.748)	2.87±2.87	2.99±2.99	-.999(.318)
제품의 색이 눈에 띄수록 더 사고 싶다.	2.12±2.12	1.98±1.98	1.406(.161)	2.03±2.03	2.05±2.05	-.150(.881)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내용은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2.56±2.56	2.82±2.82	-2.788(.006**)	2.81±2.81	2.52±2.52	3.074(.002**)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본다.	2.43±2.43	2.13±2.13	2.958(.003**)	2.18±2.18	2.43±2.43	-2.326(.020*)
유명상표 식품의 경우 값이 비싸도 기꺼이 구입한다.	1.86±1.86	1.83±1.83	.321(.748)	1.78±1.78	1.95±1.95	-1.969(.050)
과자나 음료에 있어 하나의 특정한 제품만을 습관적으로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2.92±2.92	2.80±2.80	1.066(.287)	2.80±2.80	2.95±2.95	-1.276(.203)
제품의 이름이 구입에 영향을 준다.	1.97±1.97	2.21±2.21	-2.297(.022*)	2.13±2.13	2.04±2.04	.852(.395)

\* $p < .05$ , \*\* $p < .01$

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군지역의 평균이 0.29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p < .01$ 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 본다’는 시지역의 평균이 0.25 높게 나타났고,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식품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 1) 식품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식품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68.3%), ‘매우 잘 안다’ (11.8%), ‘모른다’ (10.8%), ‘잘 모른다’ (7.8%), ‘전혀 모른다’ (1.5%) 순으로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1$ ), 지역별( $p < .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시 확인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끔 본다’ (65.5%), ‘항상 본다’ (21.5%), ‘전혀 보지 않는다’ (13.0%)순으로 가끔 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1$ ), 지역별( $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40.8%),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29.3%), ‘가격을 확인하려고’ (19.0%),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가 확인하려고’ (7.5%), ‘중량, 개수를 알아보려고’ (2.3%), ‘만든 회사를 확인하려고’ (1.1%)순으로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유통기한, 제조 년 월 일’ (36.8%), ‘가격’ (34.3%), ‘사용된 원료, 원산지’ (15.5%), ‘영양성분 표시’ (10.5%), ‘내용량’ (2.0%), ‘제조회사명’ (1.0%)순으로 유통기한이나 제조 년 월일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p < .05$ )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식품표시 내용 중의 중요도

식품표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식품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M(%)

구분	성별		지역별		전체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른다	6( 3.3)	0( .0)	1( .4)	5( 3.4)	6( 1.5)
	잘 모른다	15( 8.2)	16( 7.3)	21( 8.3)	10( 6.8)	31( 7.8)
	모른다	25(13.7)	18( 8.3)	20( 7.9)	23(15.8)	43(10.8)
	조금 알고 있다	111(61.0)	162(74.3)	184(72.4)	89(61.0)	273(68.3)
	매우 잘 안다	25(13.7)	22(10.1)	28(11.0)	19(13.0)	47(11.8)
	$\chi^2(p)$	13.762(.008**)		13.376(.010*)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시 확인여부	항상 본다	33(18.1)	53(24.3)	58(22.8)	28(19.2)	86(21.5)
	가끔 본다	114(62.6)	148(67.9)	174(68.5)	88(60.3)	262(65.5)
	전혀 보지 않는다	35(19.2)	17( 7.8)	22( 8.7)	30(20.5)	52(13.0)
	$\chi^2(p)$	12.153(.002**)		11.611(.003**)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43(29.3)	59(29.4)	65(28.0)	37(31.9)	102(29.3)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가 확인하려고	13( 8.8)	13( 6.5)	17( 7.3)	9( 7.8)	26( 7.5)
	가격을 확인하려고	30(20.4)	36(17.9)	44(19.0)	22(19.0)	66(19.0)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58(39.5)	84(41.8)	95(40.9)	47(40.5)	142(40.8)
	중량, 개수를 알아보려고	1( .7)	7( 3.5)	7( 3.0)	1( .9)	8( 2.3)
	만든회사를 확인하려고	2( 1.4)	2( 1.0)	4( 1.7)	0( .0)	4( 1.1)
$\chi^2(p)$	4.034(.545)		3.982(.552)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	15(42.9)	9(52.9)	13(59.1)	11(36.7)	24(46.2)
	표시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	10(28.6)	5(29.4)	8(36.4)	7(23.3)	15(28.8)
	영양성분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3( 8.6)	3(17.6)	1( 4.5)	5(16.7)	6(11.5)
	확인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3( 8.6)	0( .0)	0( .0)	3(10.0)	3( 5.8)
	표시된 사항을 믿을 수 없다	4(11.4)	0( .0)	0( .0)	4(13.3)	4( 7.7)
$\chi^2(p)$	4.472(.346)		8.879(.064)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	제조회사명	4( 2.2)	0( .0)	0( .0)	4( 2.7)	4( 1.0)
	유통기한,제조년월일	64(35.2)	83(38.1)	94(37.0)	53(36.3)	147(36.8)
	가격	59(32.4)	78(35.8)	90(35.4)	47(32.2)	137(34.3)
	내용량	6( 3.3)	2( .9)	2( .8)	6( 4.1)	8( 2.0)
	사용된 원료, 원산지	30(16.5)	32(14.7)	38(15.0)	24(16.4)	62(15.5)
	영양성분 표시	19(10.4)	23(10.6)	30(11.8)	12( 8.2)	42(10.5)
$\chi^2(p)$	8.364(.137)		13.642(.018*)			

\* $p < .05$ , \*\* $p < .01$

〈표 5〉 식품표시 내용 중의 중요도

M(%)

항목	성별		지역별		전체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제조회사명	6( 3.3)	0(.0)	0(.0)	6( 4.1)	6( 1.5)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85(46.7)	104(47.7)	119(46.9)	70(47.9)	189(47.3)
가격	48(26.4)	60(27.5)	70(27.6)	38(26.0)	108(27.0)
내용량(용량, 개수)	4( 2.2)	0( .0)	2( .8)	2( 1.4)	4( 1.0)
사용된 원료, 원산지	25(13.7)	26(11.9)	30(11.8)	21(14.4)	51(12.8)
영양성분 표시	14( 7.7)	28(12.8)	33(13.0)	9( 6.2)	42(10.5)
$\chi^2(p)$	14.810(.011*)		15.454(.009**)		

\* $p < .05$ , \*\* $p < .01$

〈표 6〉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실태조사

M(%)

구분	성별		지역별		전체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른다	14( 7.7)	5( 2.3)	7( 2.8)	12( 8.2)	19( 4.8)
	잘 모른다	13( 7.1)	30(13.8)	33(13.0)	10( 6.8)	43(10.8)
	모른다	21(11.5)	28(12.8)	30(11.8)	19(13.0)	49(12.3)
	조금 알고 있다	108(59.3)	139(63.8)	162(63.8)	85(58.2)	247(61.8)
	매우 잘 안다	26(14.3)	16( 7.3)	22( 8.7)	20(13.7)	42(10.5)
	$\chi^2(p)$	15.138(.004**)		11.894(.018*)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 확인여부	항상 본다	40(22.0)	27(12.4)	34(13.4)	33(22.6)	67(16.8)
	가끔 본다	104(57.1)	168(77.1)	187(73.6)	85(58.2)	272(68.0)
	전혀 보지 않는다	38(20.9)	23(10.6)	33(13.0)	28(19.2)	61(15.3)
	$\chi^2(p)$	18.177(.000***)		10.263(.006**)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가 확인하려고	58(40.3)	68(34.9)	79(35.7)	47(39.8)	126(37.2)
	건강관리를 위해서	8( 5.6)	39(20.0)	41(18.6)	6( 5.1)	47(13.9)
	다른 회사 제품과 영양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2( 1.4)	8( 4.1)	9( 4.1)	1( .8)	10( 2.9)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76(52.8)	80(41.0)	92(41.6)	64(54.2)	156(46.0)
	$\chi^2(p)$	17.670(.001**)		15.778(.001**)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	21(55.3)	13(56.5)	17(51.5)	17(60.7)	34(55.7)
	성분표시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	6(15.8)	1( 4.3)	5(15.2)	2( 7.1)	7(11.5)
	성분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7(18.4)	6(26.1)	6(18.2)	7(25.0)	13(21.3)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3( 7.9)	3(13.0)	5(15.2)	1( 3.6)	6( 9.8)
	확인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1( 2.6)	0( .0)	0( .0)	1( 3.6)	1( 1.6)
	$\chi^2(p)$	3.025(.554)		4.651(.325)		

\* $p < .05$ , \*\* $p < .01$ , \*\*\* $p < .001$

식품표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 유통기한, 제조년월일(47.3%), 가격(27.0%), 사용된 원료, 원산지(12.8%), 영양성분 표시(10.5%), 제조회사명(1.5%), 내용량(용량, 개수)(1.0%) 순으로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5$ ), 지역별( $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4.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 1)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61.8%) ‘모른다’(12.3%), ‘잘 모른다’(10.8%), ‘매우 잘 안다’(10.5%), ‘전혀 모른다’(4.8%)순으로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1$ ), 지역별( $p < .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 하는가 에서는 ‘가끔 본다’(68.0%), ‘항상 본다’(16.8%), ‘전혀 보지 않는다’(15.3%)순으로 가끔 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01$ ), 지역별( $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46.0%),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가 확인하려고’(37.2%), ‘건강관리를 위해서’(13.9%), ‘다른 회사 제품과 영양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2.9%)순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p < .01$ ), 지역별( $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55.7%), ‘성분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21.3%), ‘성분표시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11.5%),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9.8%), ‘확인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1.6%)순으로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어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 지역별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2)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는 <표 7>과 같다.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지역별로는 시지역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 5. 영양표시에 대한 기대효과

영양표시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양표시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성별로 살펴보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 ‘영양 표시를 잘 보면 좋은 식품을 고를 수 있다’, ‘각 회사 제품의 영양 표시를 비교하면 내가 원하는 식품을 살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반면 ‘영양 표시를 해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양소를 덜 먹을 수 있다’인 경우 여학생의 평균이 0.26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을 받아야 한다’인 경우 여학생의 평균이 0.23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영양 표시를 보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 ‘영양 표시를 잘 보면 좋은 식품을 고를 수 있다’, ‘각 회사 제품의 영양 표시를 비교하면 내가 원하는 식품을 살 수 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을 받아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반면 ‘영양 표시를 해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양소를 덜 먹을 수 있다’인 경우 군지역의 평균이 0.23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표 7>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

(평균±표준편차)

구분	성별		t(p)	지역별		t(p)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영양지식점수	2.01±1.00	2.90±.94	1.055 (.292)	2.92±.94	3.00±1.01	-.810 (.418)



〈표 8〉 영양표시에 대한 기대효과

(평균±표준편차)

기대효과	성별		t(p)	지역별		t(p)
	남	여		군지역	시지역	
영양 표시를 보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	3.58±3.58	3.63±3.63	-.514 (.608)	3.62±3.62	3.58±3.58	.430 (.668)
영양 표시를 잘 보면 좋은 식품을 고를 수 있다.	3.76±3.76	3.91±3.91	-1.602 (.110)	3.89±3.89	3.76±3.76	1.274 (.203)
영양 표시를 해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양소를 덜 먹을 수 있다.	3.69±3.69	3.95±3.95	-2.641 (.009**)	3.92±3.92	3.69±3.69	2.281 (.023*)
각 회사 제품의 영양 표시를 비교하면 내가 원하는 식품을 살 수 있다.	3.33±3.33	3.32±3.32	.135 (.893)	3.31±3.31	3.34±3.34	-.318 (.750)
나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3.20±3.20	3.43±3.43	-2.132 (.034*)	3.39±3.39	3.21±3.21	1.616 (.107)

\*p< .05, \*\*p< .01

#### IV. 고찰

영양표시제도를 1994년에 도입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표시 항목 중의 하나로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가치를 정해진 기준과 규칙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 당, 100g 당, 100ml 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영양성분 표시에 꼭 표시해야 하는 성분인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임의로 표시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제외)은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sub>1</sub>, 비타민 B<sub>2</sub>, 나이아신, 비타민 B<sub>6</sub>, 엽산, 비타민 B<sub>12</sub>, 비오틴, 인, 판토텐산,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린,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표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에서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식품 구입 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고르며 식품광고와 제품명의 영향을 받았다.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내용은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문항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제품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

는 남자교사는 ‘신뢰한다’가 22.9%, ‘그저그렇다’ 60.0%의 분포를 보인 반면 여교사는 ‘신뢰한다’가 19.7%, ‘그저그렇다’가 60.1%로 응답하여 남자교사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 본다’ 문항인 경우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식품구입 시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본다는 문항에서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문항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68.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시 확인여부문항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끔 본다’(65.5%)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40.8%)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29.3%)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옥희(2006)에서는 식품구매 시 영양표시 확인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소비자 태도에서는 식품구매 시 제조 년 월 일이나 유통기한 확인은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구매에 관한 문항 모두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구매지식 수준이 높았고, 성별에 따라 식품구매 실태에 차이를 보였다(p<0.001).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식

생활 소비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성별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여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46.2%), ‘표시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28.8%)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에서는 ‘유통기한, 제조 년 월 일’(36.8%), ‘가격’(34.3%)을 확인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선미(2006)에서는 아동이 영양표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 한다’가 48%, ‘영양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표시교육 후 아동들이 영양표시 내용을 확인 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표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로는 전체적으로 ‘유통기한’, ‘제조 년 월 일’(47.3%), ‘가격’(27.0%), ‘사용된 원료’, ‘원산지’(12.8%), ‘영양성분 표시’(10.5%), ‘제조회사명’(1.5%), ‘내용량(용량, 개수)’(1.0%)순으로 ‘유통기한’과 ‘제조 년 월 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p<.05$ ), 지역별( $p<.01$ )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손재연(2007)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품표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는 초등학교생은 ‘유통기한’, ‘가격’, ‘보관 시 주의사항’, 중학생은 ‘유통기한’, ‘가격’, ‘영양성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동순, 이정원(2002), 정흔희(2005), 박송미(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양표시 인지도 및 활용도의 실태 조사 결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6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본다’(68.0%)가 가장 많았고, 이도 역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흔희(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더 확인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46.0%)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고 시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해 확인한다는 응답은 여자와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영양표시 확인 이유로 ‘건강

을 위해’(51.05%),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나 확인하려고’(43.16%)가 가장 많이 차지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주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이강자, 이윤희(2004)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가 5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영양정보를 얻기 위하여 21.3%, 제품간의 비교를 위하여 10.0%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소비자들은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영양정보나 제품선택에 응용하기보다는 안전성 여부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55.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석아(2001)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과 식태도 점수가 농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벨라민 파동 등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 후 영양표시의 인지도에 의한 차이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 간에 차이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대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영양 표시를 해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양소를 덜 먹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여자의 응답률과 군지역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나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문항에 여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식품표시와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이를 성별과 지역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생의 식생활교육과 소비자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영양표시제도 확립과 영양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응답자 400명 중 남자는 182명(45.5%), 여자는 218명(54.5%)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 254명(63.5%), 시 지역

146명(36.5%)을 차지했다.

2. 식품구입 시 학생의 인식에서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고르며 식품광고와 제품명의 영향을 받았다.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내용은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문항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 본다’ 문항인 경우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식품구입 시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꼭 먹어 본다’ 문항에서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문항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68.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시 확인여부문항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끔 본다’ (65.5%)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군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40.8%)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29.3%)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 (46.2%), ‘표시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28.8%)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에서는 ‘유통기한’, ‘제조 년 월 일’(36.8%), ‘가격’(34.3%)을 확인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표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로는 전체적으로 ‘유통기한’, ‘제조 년 월 일’ (47.3%), ‘가격’ (27.0%), ‘사용된 원료’, ‘원산지’ (12.8%), ‘영양성분 표시’ (10.5%), ‘제조회사명’ (1.5%), ‘내용량(용량, 개수)’ (1.0%)순으로 ‘유통기한’과 ‘제조 년 월 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p<0.05$ ), 지역별( $p<0.01$ )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표시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식품의 종류에 따른 식품표시 내용 확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모든 식품에서 식품표시 내용을 가끔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양표시 인지도 및 활용도의 실태 조사 결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6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본다’(68.0%)가 가장 많았고, 이도 역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46.0%)가 응답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으며,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해 확인한다는 응답은 여자와 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이 없다’(55.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지식 점수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기대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영양 표시를 해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양소를 덜 먹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0.26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 지역( $M=3.92$ ), 시 지역( $M=3.69$ )로 군지역의 평균이 0.23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나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문항에 여자의 평균이 0.23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6. 식품표시나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41.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가공식품을 사거나 먹을 때 식품표시나 영양표시를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의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종종 확인 하겠다’(37.8%)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맛을 중요시하였으며, 영양가가 높지 않고 탄수화물과 당류가 높은 식품의 구매빈도가 높았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식품영양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영양교육과 효과적인 영양교육도구도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 가공식품의 식품영양표시가 학생들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초등학교, 식품표시, 영양표시, 간식, 가공식품

## 참 고 문 헌

- 강석아. (2001). 초등학교의 식품구매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이정숙. (2009). 부산지역 주민의 연령별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8(12), 1801-1810.
- 김동순, 이정원. (2002).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이용 및 인지도 실태.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8(3), 301-310.
- 김향숙, 백수진, 이경애. (1999).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이용 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4), 948-953.
- 박선성, 김나영, 한명주. (2008). 중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4(2), 164-173.
- 박송미. (2006).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의 인지도와 이용실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 (2006). 초등학교의 식품구매 실태 및 식생활 소비자능력 조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민영희, 정해량. (1995).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I)- 소비자 인식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155-166.
- 손재연. (2007). 연령별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에 대한 이용실태와 인지도.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식품 등 표시 기준 해설서**. 1-3.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 2008-66호).
- 이강자, 이윤희. (2004). 주부들의 식생활과 식품영양표시 제도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4(2), 161-174.
- 이은영. (2008). 서울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영양표시 지식수준이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봉순, 유두련, 박영미. (2002).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 관련 식행동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3), 299-308.
- 이정숙. (2009).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4), 430-440.
- 이주인, 김정현, 정인경. (2008). 청소년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59-568.
- 이현정, 정해량, 장영애. (2002). 시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4), 585-593.
- 임현슬, 김향숙. (1998). 중등학교 여교사의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이용실태 및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7(4), 765-774.
- 정흔희. (2005). 고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이용실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나미, 윤지영, 김옥선, 고영주, 정현아, 최은영. (2005). 서울·경남 일부지역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5(20), 525-531.
- 현선미. (2006). 영양표시 읽기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의 식생활태도 개선.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양자. (1998). 제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체격과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2), 142.
- 홍양자. (1998). 제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체격과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I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2), 141-151.

접 수 일 : 2010. 06. 16.

수정완료일 : 2010. 10. 15.

게재확정일 : 2010. 10. 18.